11

2026 vol.630

만남



교회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 선교 · 교육 · 성도의 교제 · 봉사

11월 목회력

01 주일 ·찬양예배 성찬
06 금 ·구역모임의 날, 전도 특별금요기도회
07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08 주일 ·한경직기념사업회 시상식, 제직회
09 월 ~ **14** 토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13 금 ·전도 특별금요기도회
15 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총동원전도주일
18 수 ·평생대 실버스타
20 금 ·심방준비회
21 토 ·3040 연합기도회
22 주일 ·새가족환영회
29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창립기념음악회, 사회봉사주일

CONTENTS



14

이달의 말씀
02 11월의 뜨락에 서서 _ 김운성

특집 I | 돌아보면 은혜, 고백하는 감사
05 감사가 위독하다 _ 김태영
08 섬기러 갔다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_ 정병숙
10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_ 전영윤

특집 II | 이제는 전도의 현장으로!
12 이제 그만할까요? _ 강승훈
14 Y·E·S '영락복음전도사역' _ 김무섭

특별기고 |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과 신앙
16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나로서 살아가는 힘 _ 김은주

2026. 11
vol. 630
만남





24

47

다음세대 / 청년광장

20 입시는 너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_ 소남호
22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_ 벨레그 멘드
24 세대를 지나 세대를 이어, 남겨진 신앙의 유산 _ 최지윤
26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찬양만이 아니었습니다 _ 서상준

땅끝까지 이르러

28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농어촌 다음세대를 꿈꾸며 _ 선교부
30 선교는 모두의 사명…일상 속 실천과 참여가 과제 _ 선교부
35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훈련병 진중세례식 _ 이대근
36 달란트, 무대 위에서 예배가 되다 _ 김준겸
37 영락시어터 11월 상영 영화 _ 문화선교

영락글로벌

38 제2남선교회 몽골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_ 정재훈
41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닮아 가는 인터넷해외선교봉사 _ 김병우
44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르더크 _ 조하현

영락의 울타리

47 치앙마이 산골까지 흘러간 복음 _ 이민규
50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 _ 홍준표
52 언어는 달라도 찬양은 하나 _ 최민혁
54 성경 속 한자이야기 感謝 _ 김현중

교회소식

55 전교인 만남주일 외
60 〈나를 붙들지 마라〉 _ 이은혜
61 새아기·새가정

11월의 뜨락에 서서



김운성 담임목사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디모데후서 4:21)

'노을'이란 동요를 아시지요? 1984년 제2회 MBC 창작 동요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부분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라는 가사가 맨 끝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 동요를 듣노라면 정겨운 풍경화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우리 마음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음악과 미술이 통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먼저 보이는 색은 노랑입니다. 가을 들판이 노랗게 물들었을 테니까요. 다음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빨강입니다. 저녁노을이 빨갛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 곳곳의 나무들도 빨간 단풍으로 갈아입었겠지요. 저녁 연기는 부연 회색일까요? 바람에도 색깔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을 색깔을 '색동옷'이라 표현한 걸 보면 아마 작사자는 바람의 색깔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색동옷에 모든 색이 배어 있습니다.

이 동요의 계절은 가을입니다만, 어찌 가을뿐일까요? 계절은 색으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들꽃들이 세상을 형형색색으로 꾸미는 봄도, 녹색이 진하다 못해 검게까지 느껴지는 여름도, 흰 눈으로 덮여 흰옷의 천사처럼 되는 겨울도 색과 함께 옵니다.

'인생은 색깔'이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색동옷 시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끔 색동저고리를 입고 등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색동옷을 입히길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놀리곤 했지만,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색깔은 검정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종종 알록달록한 교련복을 입기도 했지만, 주로 검정 교

가을은 저물어도
믿음은 더욱 깊이 익어갑니다.

생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께 드린 바울.

인생의 겨울을 앞둔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무르익었습니까?

복을 입었습니다. 대학에도 군청색 교복이 있어서 일 년쯤 입은 것 같습니다. 그 후 한창때는 자유로운 색의 옷을 입었습니다만, 노년기가 된 어르신들은 대개 흰색 계통의 밝은 옷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백발이 되셨으니, 어르신들은 흰색과 가까운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겨울은 노년에 해당하는가 봅니다. 하긴 계절을 헤아릴 때 봄부터 시작하여 겨울에 도착하니, 봄은 어린이 시절에 해당하고, 여름은 청장년기, 가을은 열매 가득한 초로기, 겨울은 노년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계절과 색깔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가을 한복판을 지나 겨울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겨울이 되지는 않았지만, 곧 겨울이 올 무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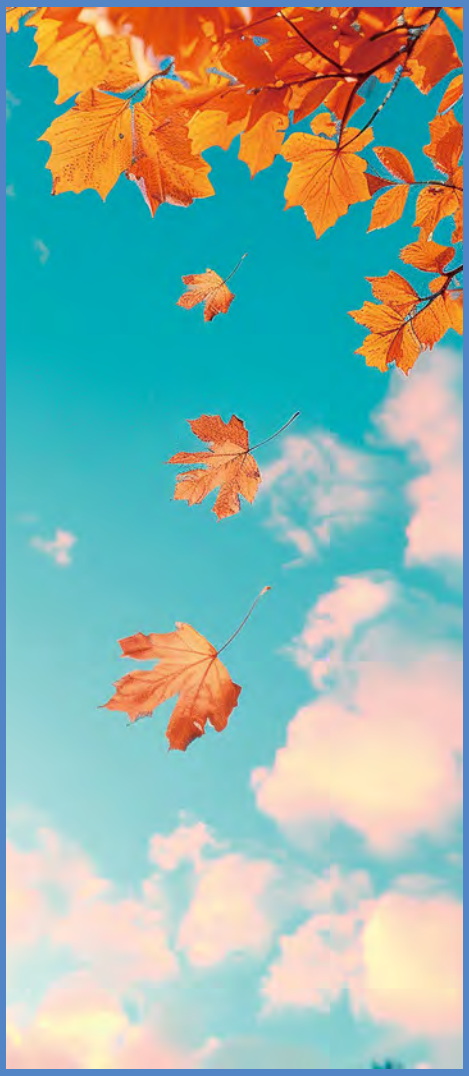
이때 계절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도 겨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내다보면서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바울은 67년경 로마 인근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하신 것으로 전해지는데, 디모데후서는 그 직전인 66년 말에서 67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 생애에서 늦가을도 지나고 곧 엄동이 올 무렵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생애 끝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신앙은 익을 대로 익어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신앙의 봄이었다면, 복음 전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한 것은 여름과 가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바울의 신앙이 익을 대로 익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6~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생애 전체를 한 방울 남김없이 주님께 부어드렸고, 이제 마지막 생명까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후회도 없는 꽉 찬 영혼을 봅니다.

11월입니다. 우리도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익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홍시가 잘 익은 11월의 시골 뜨락에 서서 우리 신앙과 삶을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할 때입니다. 안남



감사는 고백이 되고, 복음은 발걸음이 됩니다

좋은 날의 '그래서 감사'를 넘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도 감사'.
섬기러 갔다가 도리어 은혜를 얻고,
낯선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 이들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하시기에 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내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망설이는 발걸음을 복음의 길로 옮깁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묻는 순간에도
주님이 맺으실 열매를 바라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위독하다



김태영 장로
고양·파주교구
사랑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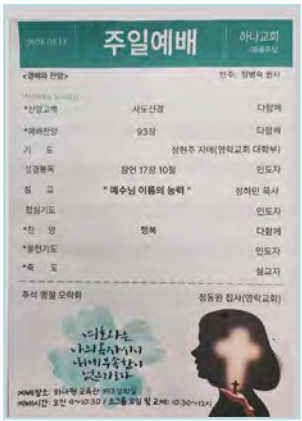



Thank you!

섬기러 갔다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병숙 권사
관악·동작·금천교구
북한선교부 하나교회팀
갈릴리찬양대





북한선교부 하나교회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전영윤 성도
북한선교부



낯선 자유, 낯선 세상

제가 처음 대한민국 땅을 밟던 날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했던 날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려 본 적이 없는 '자유'라는 단어는 제 가슴을 설레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문화의 차이까지 겪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막막함 속에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니, 마치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하던 때의 저는 성인이었지만, 갓 태어난 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외래어가 많아 물건 하나도 쉽게 사기 어려웠고, 길거리 간판 역시 대부분 영어와 외래어로 되어 있어 길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안내 방송을 알아듣지 못해 버스 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서 내린 뒤, 다시 탔는데도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 버려, 보통 30분이면 도착할 집에 2시간 동안 헤매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물비누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분명 같은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일곱 살 어린아이도 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한참을 망설이다가 큰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판매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원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다시 한 번 언어의 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투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끔은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며 이질감마저 느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예쁜 하늘을 바라보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자유에 대한 감사조차 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시고, 지쳐 가는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며 성경을 읽던 중,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성경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는 남들과 다른 제 말투에 움츠러들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몇 번이고 물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언가 할 때마다 늘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앞서던 저였지만,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국에 두려움 없이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선교대회에서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 해주는 모습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빛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안남

이제 그만할까요?



강승훈 목사
마포·영등포교구
전도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전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고 영혼의 추수를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작년부터 성령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영락전도시스템(Y·E·S)을 통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복음전도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의 사건들을 뜻밖의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시편 126:5).

하나님의 때에 맺히는 구원의 열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옥(獄)에 갇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그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해 준 일로 인해, 옥에 갇힌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사도행전 16:25). 그 결과 옥문이 열린 기적을 넘어 간수장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간수장 가족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 영광

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과정(過程)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6:7). 그래서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질문한 것도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낼 때,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가리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종의 말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곧바로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간수장은 구원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생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온 가족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얼마 전에 전도폭발 훈련과 관련해서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이번만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답했지만,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이 시대의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묻고 있는 애타는 소리를 그분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는 바울이 한밤중 감옥에 갇혔던 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그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역을 결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 드리며, 세상의 비명(悲鳴)과 같은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답하는 구원받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사도행전 16:31) 안남

Y·E·S(Youngnak Evangelical System) '영락복음전도사역'





김무섭 장로
전도부 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를 시작하려 하면 많은 성도님께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전도를 앞두고 이러한 고민을 안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실제적인 전도를 돕기 위해 전도부에서는 'Y·E·S(Youngnak Evangelical System) 영락복음전도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Y·E·S 사역'은 '배우고 → 나아가고 → 열매 맺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전도가 실제적인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가는 사역입니다.

먼저 '전도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봉사관 1층에서 전도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 전도하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전도 상담과 전도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도 지원을 요청하시면 훈련된 전도자들이 1:1로 매칭되어 전도를 돕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전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전도, 이제는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전도훈련학교'

아울러 성도들이 전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도훈련학교'에서는 기초 과정·심화 과정·전문 과정의 3개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정인 '나의 전도학교'는 성경적 세계관, 나의 정체성과 간증, 실제적인 전도 방법 등을 배우며 전도의 비전을 세워 가는 4주 훈련 과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가운데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심화 과정인 '전도폭발훈련과정'도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배우며, 모든 성도가 전도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전문 과정인 '전도지도자양성과정'은 실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다음세대를 세워 가는 전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4박 5일간 진행했습니다.



나의 전도학교



군전도



노방전도

나가고 실천하는 '전도사역'

전도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영락전도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군부대전도', '이웃섬김전도', '병원전도' 등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노방전도'를 매 주일 4부예배 후에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훈련된 전도자들이 함께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터 속의 선교사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직장인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예배가 일터와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연결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열매 맺고 정착을 위한 '맞춤전도'

오는 11월 15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지난 5월 31일,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작정해 주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부에서는 기도회와 세미나, 특별 중보기도회를 통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에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는 'FOR YOU CONCERT'를 마련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부담 없이 교회를 찾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배우고, 나아가고, 열매 맺는 'Y·E·S 영락복음전도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며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남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나로서 살아가는 힘



김은주 교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불같이 뿜어져 나오는 힘의 원천, 자율성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 대표 축구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경기 중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축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열여섯 살인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축구뿐이었고, 축구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 학업 수준은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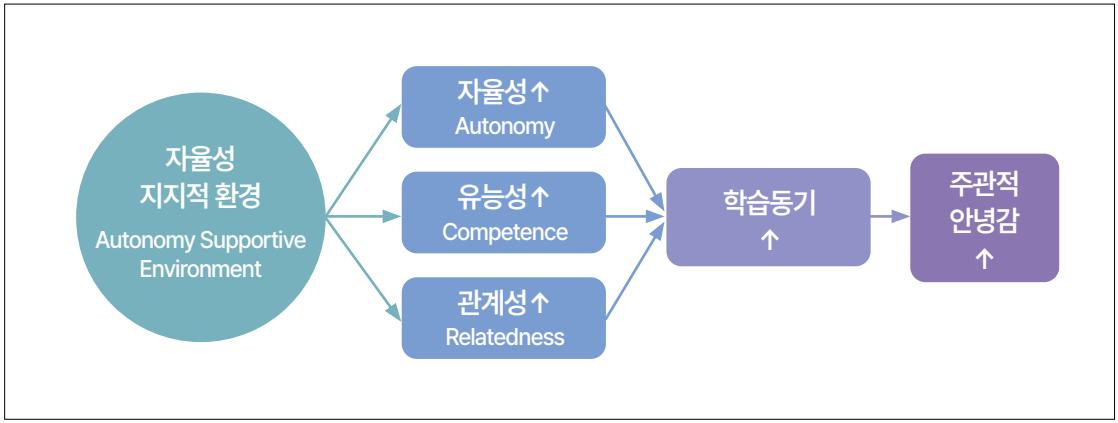
대표팀에서 나온 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던 그는 어느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 제 학생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같은 힘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학생은 하루를 1분 단위로 쪼개 공부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하니 읽는 것이 놀라울 만큼 잘 외워졌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결국 제 학생은 재수도 하지 않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의 연세대학교 '말하기와 토론' 강좌에서 이 학생이 자기소개 스피치를 하면서, "저는 재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입학했어요."라는 대목에서 수강생들이 일제히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의 이론적 모형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온 '불같이 뿜어져 나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기결정성이론과 자율성

'불같이 뿜어져 나오는 힘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에드워드 디씨(Edward Deci)와 리처드 라이언(Richard Ryan)이 발전시킨 이 이론은 인간에게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고 심리적 성장도 촉진됩니다.

이 중에서 자율성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지각입니다. 외부의 강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자신의 가치와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 역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강력한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여호수아 24:15)는 말씀처럼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자, 막중한 책임입니다.

자율성을 키워주는 '구조화된 자율성 지지적 환경'

자율성을 키워주는 자율성 지지적 환경은 구성원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내버려두는 방임이 아닙니다. 자기결정성이론이 강조하는 환경은 '구조화된 자율성 지지적 환경(Structured Autonomy Supportive Environment)'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구성원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통제적인 환경에서는 선택권이 거의 없고, 엄격한 규칙과 지시, 엄한 처벌이 있을 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제적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통제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수행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제적인 환경에서는 고차원적 사고, 창의성 등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저 처벌이 두려워서 기계적 반복, 기계적 암기 등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다섯 가지 방법

첫째,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구성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자율성을 제대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직접 묻기**입니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리더는 자신의 지시보다 구성원의 생각과 욕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둡니다.

셋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입니다. 정답을 대신 알려주기보다 구성원이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줍니다.

넷째, **과제의 규칙과 한계의 근거 제시하기**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지시보다 왜 이러한 규칙과 한계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자율성을 높입니다.

다섯째, **정확한 정보를 담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성적이 올랐지! 앞으로도 무조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라고 말하기보다 "매일 꾸준히 숙제했더니 성적이 좋아졌구나.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결정성, 나로서 살아가는 힘』(김은주 교수)
(2025 세종도서·2025 연세대 우수 저서 선정)

자율성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로서 살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내 삶의 선장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삶에 방향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지각하는 것이 자율성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자율성, 즉 우리의 선택을 확보해주는 구절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빌레몬서 1:14)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결정성의 힘**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한국교회연합 합창단

제56회 메시아 연주회

G. F. HÄNDEL

MESSIAH

The 56th Annual Performance of Händel's Messiah Since 1964





지휘
조형민



오르간
박원선



소프라노
박미자



카운터테너
정민호



테너
조성환



바리톤
안대현

합창 한국교회연합 합창단 영어가사 연주 | 협연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원전 악기 오케스트라

2026. 11. 29. SUN 7:00 PM 세종대극장

주최 | 메시아연주회 주관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티켓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예매 | 세종문화회관 02-399-1000 NOL ticket 1544-1555

공연문의 |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02-3487-0678

입시는 너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소남호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고등부 부감







1 제자 훈련 밥퍼사역
2 여름수련회 중 마음의 기도
3 선생님과 함께한 미션트립

성공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입시를 앞두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적표 한 장, 모의고사 점수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앞으로의 길이 걱정될 때가 많을 시기입니다.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주 성공한 한 부자가 휴가 중 바닷가에서 작은 배로 고기를 잡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어부는 나무 사이에 해먹을 걸고 한가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더 열심히 일해 배를 늘리고 큰돈을 벌면 좋은 집과 차도 사고, 나중에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화려한 요트를 갖고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고기 잡을 배도 있고, 돌아갈 집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성공의 기준처럼 말합니다. 때로는 마치 송아지 엉덩이에 등급 도장을 찍듯, 세상은 점수와 학교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나의 표식을 붙이고 그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 숫자나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창세기 1:26~27). 그리고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어 경작하고 돌보게 하셨으며,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목적성과 의미를 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창조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의미를 발견하고, 돌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과 가능성을 잘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단지 남보다 앞서거나 나만 잘살기 위한 것에 머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능력이 언젠가 연약한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 주며,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성적표보다 더 큰 가능성

세상은 때때로 점수와 대학, 직업과 조건으로 우리를 하나의 인간적인 프레임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프레임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지금의 성적이나 한 번의 입시 결과가 여러분의 미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여러분의 귀한 존재 가치와 가능성이 하늘의 별만큼 많이 열려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정한 기준에 자신을 가두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과 마음을 주셨을까? 이것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는 판결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입시는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발견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지혜,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세상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더 큰 가능성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포옹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만남

내가 놓으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벨레그 멘드

몽골에서 시작된 믿음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유학생 벨레그 멘드입니다. 귀한 지면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빛장학금으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6년생으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 부모님은 이십여 년 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최갑열 목사가 섬기는 뭉힝오스교회에 출석했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주한 녹록지 않은 현실

저는 2023년 9월, 공부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입주 청소와 호텔 청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고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지쳐 혼자 울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어렵게 번 돈이 학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가 통장에 거의 남지 않을 때면 마음마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결국 바라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시는지 의심하며 믿음마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놓으려 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메말랐던 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좋은 사장님을 만나 떡볶이집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척과 떨어져 혼자 살며 월세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어 이전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장학금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하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했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제게 귀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며 감사와 함께 회개의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의 빛으로

이번 장학금은 학비를 마련하고, 최근 이사하며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학금을 단지 필요한 돈을 받은 것으로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제게 맡겨진 일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섬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필요한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빛장학금이라는 귀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을 잊지 않고,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빛과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참빛육영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참빛육영재단은 8월 30일(주일) 제2식당에서 2026년 2학기 장학생 1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사진)**

참빛육영재단은 1990년 7월 고(故) 임정산 장로와 고(故) 최영실 권사 부부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됐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을 발굴·양성하고자 36년간 5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그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에 따라 활동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나, 한 세대가 지나면서 장학생에게 설립자의 뜻을 전하고 학생들의 삶과 진로·다짐을 들으며 장학생 선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장학생은 장신대·외부 기관과 교회 내 영락복지재단·대학부·외국인예배부·자유인예배부서의 추천을 받았다. 이날 교회 내 추천 부서의 목회자와 임원들이 참석해 취지를 공유하고 장학생들을 격려·축하했다.

참빛육영재단은 앞으로 장학생들과 심도 있는 개별 만남을 이어 가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성장할 인재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만남

세대를 지나 세대를 이어, 남겨진 신앙의 유산



최지윤 성도
청년선교회





수고하고 짐 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영락교회에 등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내가 하기선교를 신청한 것은 결코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은 어느 무더운 날, 6월의 설교 말씀이었다. 한 선교사의 설교 중에, "크리스천이 나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었다. 이전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해 오다가 교회를 이제 막 옮겼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 있으려던 찰나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이 생각은 예배 후 청년선교회 조 모임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하기선교 광고를 듣는데, 마치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상반기 동안 네 삶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던 머리를 비우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해 보지 않을래? 그러면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크고 완벽한 계획으로 내가 이룰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껏 나의 계획을 위해 애써 온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이번 여름만큼은 하기선교를 위해 정성을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와의 만남

이번 하기선교는 청년선교회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첫 선교였다. 이 시간은 준비 과정부터 선교 현장까지 함께하는 지체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 서로를 향한 배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열정으로 빛났다. 주일 나눔 시간만으로는 잘 몰랐던 이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리며 함께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다. 선교 현장에서는 유독 서로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불편함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서로 앞다투어 수고를 자처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한창 푸릇하게 피어오르던 시기를 지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청년선교회만이 지닌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 이루실 하나님의 때

이제껏 한 번도 주일학교를 접해 보지 못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과 공부 준비를 맡게 되었다.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포 지역에 꼭 내가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다는 기대감을 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공과 공부 시간이 아닌, 우연히 배치된 하굣길 차량 안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담임이 아닌 다른 반 친구를 데려다주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눈 대화 속에서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듣게 하셨다.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고 관심을 두고 아이의 마음을 물어봐 주었을 뿐이었는데, '선생님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와락 안기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사랑이 필요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블레싱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 대화를 나눈 그 아이를 향해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그 아이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그 아이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게 주셨다. 보지 못해도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식은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 앞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도 힘이 될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가장 완벽한 여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만남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찬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상준 성도
대학2부 요셉마을
대학부찬양대 SMC 총무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된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는 우리 영락교회 대학부찬양대 SMC 대원들의 기도이자 이번 50주년 기념 찬양음악회의 표어였습니다. 20대 청년 세대부터 이제는 자녀 세대와 함께 섬기고 있는 부모 세대까지 모두가 함께했던 찬양음악회는, '영원히 찬양하리'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SMC에서 섬기고 있는 저를 처음 SMC로 이끈 것은 찬양의 즐거움보다는 토요 연습 때 간식으로 주던 빵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저는 형, 누나들이 하나씩 더 챙겨 주던 빵이 좋아 찬양대에 계속 나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 흥얼거렸던 찬양들은 제가 주님을 찾지 않던 시기에도 저를 붙들어 주었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찬양의 즐거움과 공동체의 은혜, 그리고 50주년을 준비할 수 있는 감사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50주년 음악회에서 깨달은 은혜

음악회 며칠 전, 한 대원께서 제게 "주님께서는 이미 음악회를 통해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셨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음악회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느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평일에도 나와서 연습했던 대원들, 악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을 위해 시간을 내어 도와주던 대원들, 뒤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선생님들과 지도위원분들을 떠올리며, '이 모든 시간을 위해 주님께서 음악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순간 속에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5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의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쁨의 고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마음에 '왜 하필 5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거야? 단지 숫자가 예뻐서 준비하는 건 아니야?'라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번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우리 세대가 준비하게 하신 것도 크나큰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회 때 사용할 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찾아본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선배님들이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세대를 이어 내려온 찬양의 기쁨을 눈으로 직접 보며, SMC라는 공동체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세워 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흐르는 사랑의 바통

또 인터뷰와 연합찬양, 여러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도 선배님들의 응원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지?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해 드려야 할까?'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는 것은,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아셨기에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SMC가 이어져 온 것은 단순히 대학부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고 졸업 후에도 사랑이 바통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학부찬양대 SMC의 50주년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농어촌 다음세대를 꿈꾸며…

창립 80년을 넘어 81주년을 맞이한 영락교회는 다시 개척교회 정신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지난 10월 9일(금) 저녁, 오프닝 뮤지컬 '깨어진 향유' 공연을 시작으로 2026 선교대회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선교주일 예배와 학원선교대회, 분야별 선교세미나, 선교부흥회 등을 통하여 이번 대회의 주제인 농어촌 다음세대를 위한 고귀한 사역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부



10월 14일 선교부흥회 첫날 진주 초원교회 청소년 특송









▲ 부흥회 강사 이기성 목사(초원교회)



▲ 선교주일 외국어예배팀 마당행사



선교는 모두의 사명…일상 속 실천과 참여가 과제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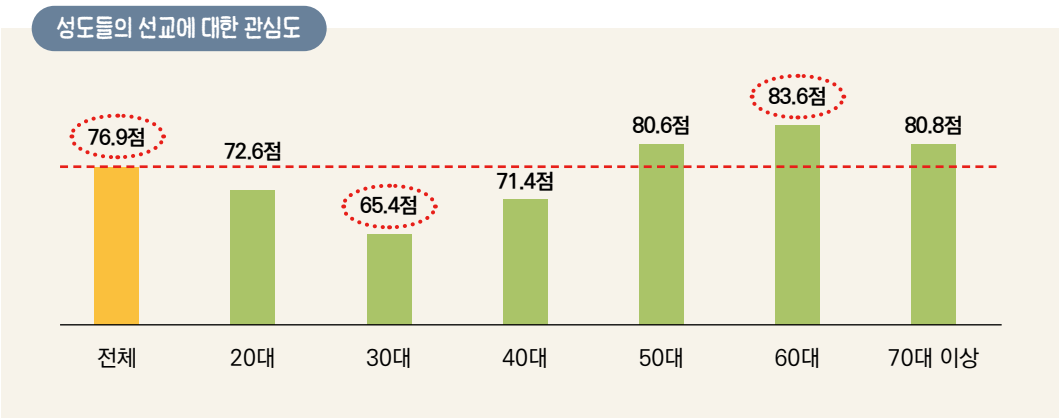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 '선교적 교회'로 한 걸음 더

선교 관심도 76.9점, 일상 선교 인식 높아… 청년세대 참여와 양육·훈련, 선교부와의 소통은 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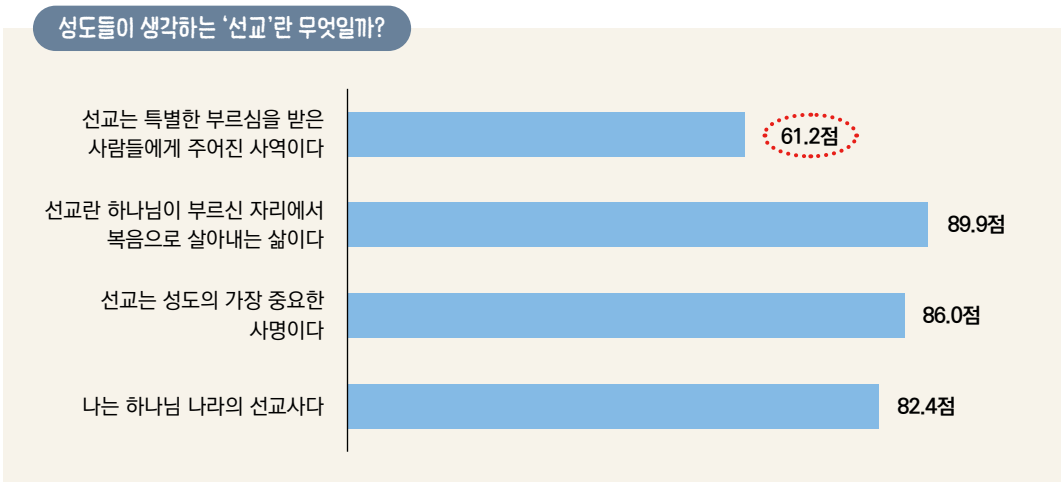
지난 7월 5일(주일)부터 19일(주일)까지 선교부가 20대 이상 영락교회 전 성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락교회 성도의 선교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성도들은 선교를 선교사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다만 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선교부의 다양한 사역에 대한 정보와 교육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앞으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선교 참여 방식과 소통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교, '특별한 사역' 넘어 일상의 삶으로 인식… 기도 생활 대비 실제 전도 실천 낮아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76.9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연령별 관심도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60대(83.6점)가 가장 높았으며, 30대(65.4점)는 가장 낮았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중·장년층에서 높고 20~40대에서 더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영락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선교'란 무엇일까?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이라는 인식은 61.2점에 그쳤다. 반면 '선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응답은 89.9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다.'라는 응답은 82.4점으로 매우 높았다. 선교를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에 한정하기보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간격이 있었다. 지난 1년간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이웃·지인을 위해 기도해 본 성도는 90% 이상이었으며, 개인적·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경우도 68.1%에 달했다. 반면 실제 전도 경험은 기도 실천보다 낮았다. 특히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본 경험은 36.4%에 그쳤다. 가족·친척에게 복음을 전해 본 경험은 69.7%, 친구·이웃·지인은 60.5%였다. 일상 선교에 대한 공감대를 실제 전도와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대목이다.

▶ 관계별 기도 및 복음 전도 경험

대 상	기도해 본 적 **'있다'**	복음 전해 본 적 **'있다'**
가족, 친척	98.5%	69.7%
친구, 이웃, 지인	96.4%	60.5%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	88.2%	**51.7%**
사회적 관계가 '없는' 사람	**68.1%**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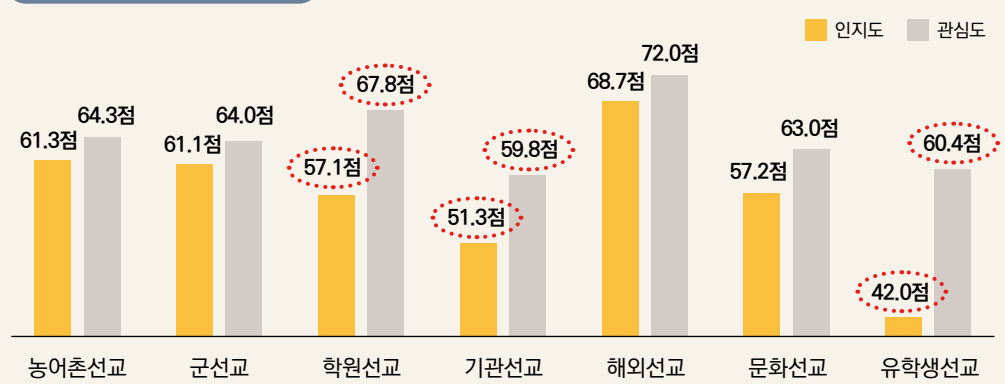
영락교회는 선교사역 많이 하는 교회… 일상 선교를 위한 양육·훈련은 보완 필요

영락교회의 선교사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선교사 파송과 선교비 지출, 단기선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역 측면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평가(79.8점)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성도들이 일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전하도록 돕는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하다는 평가(65.2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회 차원의 선교사역뿐 아니라 개별 성도의 삶과 연결되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중점 추진 분야는 '학원선교'… 관심도에 비해 인지도 낮아

선교부의 각 사역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를 물은 결과, 해외선교는 인지도와 관심도가 모두 높았다. 반면 학원선교는 관심도(67.8점)에 비해 어떤 사역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57.1점)는 낮은 편이었다. 유학생선교와 기관선교에 있어서도 관심도 대비 인지도가 낮아 성도들의 관심을 실제 참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역을 알리는 소통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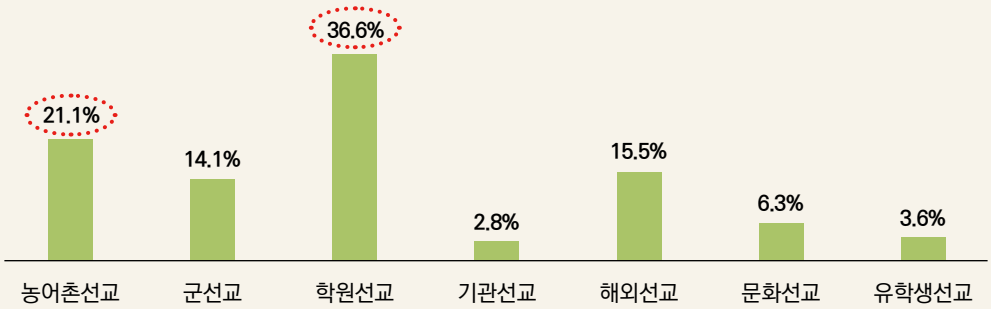
각 사역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학원선교(36.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농어촌선교(21.1%), 해외선교(15.5%), 군선교(14.1%) 순이었다. 특히 학원선교는 현재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향후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역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세대와 학교 현장을 향한 선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교회가 어떤 학원선교를 펼치고 있는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얻은 **농어촌선교(21.1%)**는 도시와 대형교회에 관심과 사역이 집중되기보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형 교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성도들의 문제의식과 연결해 볼 수 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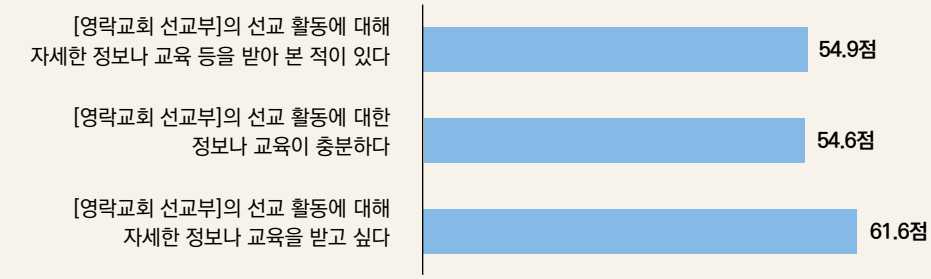


선교부를 통한 선교 활동 참여 의향은 높지만… 시간과 정보가 '장벽'

현재 선교 활동 참여는 직접적인 봉사보다 기도와 후원 등 간접적인 방식이 많았다. 현금·물품 기부 경험은 75.5%, 정기적인 기도는 64.3%인 반면, 선교부 제직이나 봉사자로 참여한 비율은 34.7%였다. 참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0.3%)였다. '직접적인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17.0%),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14.7%),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몰라서'(13.8%)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향후 선교부를 통한 선교 활동 참여 의향(70.1점)은 높은 편이다. 다만 20대는 66.5점, 30대는 63.4점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교 정보·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61.6점인 반면, '선교부 정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는 54.9점, '정보·교육이 충분하다'는 평가는 54.6점에 그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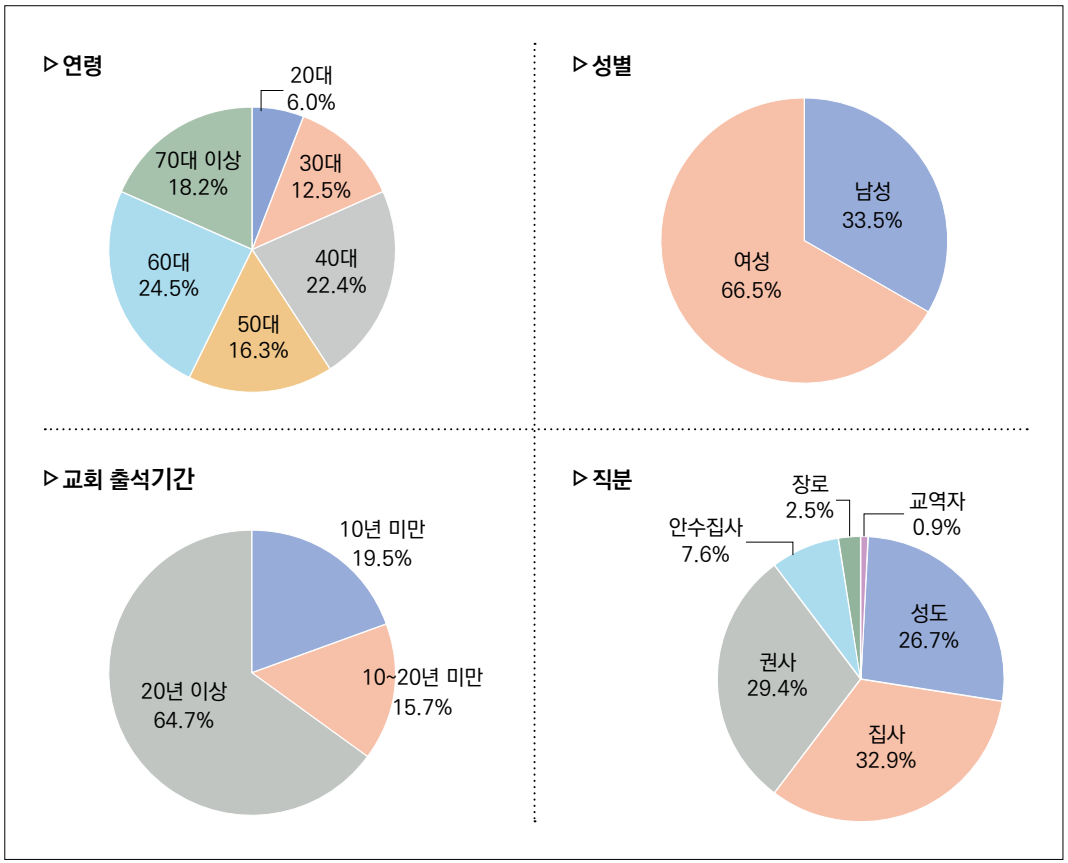
선교 활동에 대한 정보와 교육



이번 조사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이러한 인식이 실제 삶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성도들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선교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교부는 지난 10월 농어촌선교를 주제로 한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각 파트별 선교사역 및 성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향후에는 선교부의 다양한 사역과 참여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성도들의 관심이 실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선교사역의 토대 위에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안남

※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총 응답자 : 686명)



훈련병 1,114명,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다

- 제681차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훈련병 진중세례식







이대근 집사
서초교구
부부선교회

1,114명 훈련병의 진중세례식

지난 9월 19일(토),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을 거행했다. 1천 명이 넘는 훈련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진중세례식은 김운성 담임목사를 비롯한 9명의 목회자가 세례를 집례하고, 19명의 시무장로를 포함한 총 134명의 성도가 함께 참여했다.

서상현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현승하 제2여전도회 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운성 담임목사가 "자신을 시험하라"(고린도후서 13: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김순미 장로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날 1,114명의 훈련병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훈련소

2005년 추운 겨울, 인제 12사단 훈련소에 192번 훈련병으로 입소했었던 나는 20년 만에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게 된 셈이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다시 찾은 연무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군인교회의 커다란 십자가였다. 이미 강당을 가득 메운 20대 초반의 앳된 훈련병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고, 그 찬양의 열기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무색할 만큼 예배당은 뜨거운 은혜로 가득했다. 또한 끊임없이 세례받고 나오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천국 잔치에 참여한 듯한 감동이 마음 깊이 전해졌다.

세례받은 장병들이 앞으로의 군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또한 전역한 후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이번 진중세례식을 통해 군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했으며, 선교부의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한다. 만남

달란트, 무대 위에서 예배가 되다



김준겸 집사
고양·파주교구
위트니스 뮤지컬 팀장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1998년 창설 이래 문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크리스천 뮤지컬팀 '위트니스(Witness)'입니다. 『만남』을 통해 영락의 숨은 보석 같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위트니스가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기도의 무릎 위에서 시작됩니다. 땀 흘려 연습하는 과정이 산 제사가 되고 무대 위 눈물이 신앙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의 감동이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둔 예술적 달란트가 있으신가요? 위트니스는 무대 위에서 빛날 배우와 가수뿐만 아니라 무대 미술, 디자인, 조명, 음향, 기획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품을 완성해 나갈 스태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에 치여, 혹은 나설 용기가 부족해 귀한 재능을 묻어두고 계셨다면 이제 위트니스 뮤지컬팀과 함께 주님을 위해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경력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진실한 중심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위트니스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새롭게 준비하는 다음 사역의 여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 무대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교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새로운 가족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문화사역에 동역해 주실 여러분을 가슴 벅차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영락시어터 11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형 (2016) 12 1시간 50분

1일

감독 : 권수경 **출연** : 조정석, 도경수, 박신혜 외

유도 경기 중 사고로 시력을 잃은 국가대표 유망주 두영. 사기 전과가 있는 형 두식은 동생을 돌보겠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15년 만에 돌아온다. 연락 한 번 없던 형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두영의 삶은 더욱 엉망이 되어가는데….

식객 (Le Grand Chef, 2007) 12 1시간 53분

8일



감독 : 전윤수 **출연** : 김강우, 임원희, 이하나, 정은표, 김상호, 정진 외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맛을 자랑하는 한식집 운암정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요리사를 선출하여 대를 잇는다. 음식에 마음을 담는 천재 요리사 성찬과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 봉주는 운암정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한편 성찬의 황복회 요리를 먹은 심사위원들이 갑자기 복어독에 중독되어 하나둘씩 쓰러지는데….



바베트의 만찬 (Babettes gæstebud, 1987) ALL 1시간 42분

15일

감독 : 가브리엘 악셀 **출연** : 스테판 오드랑, 보딜 쿠어, 비르지트 페데스피엘, 야를 쿨레, 장 필립 외

덴마크의 바닷가 작은 마을, 그곳에서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 마티나와 필리파. 젊은 날의 사랑과 추억을 간직한 채 세월은 흐르고…. 어느 날 필리파에게 호감을 품었던 파팽의 편지를 품에 안은 바베트라는 여자가 찾아온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아가던 바베트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자 그녀는 이 소박한 마을에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는데….

레미제라블 (Les Miserables, 2012) 12 1시간 15분(상) 1시간 23분(하)

상22일/하29일



감독 : 톰 후퍼 **출연** : 휴 잭맨, 러셀 크로우, 아만다 사이프리드, 앤 해서웨이, 헬레나 본햄 카터 외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우연히 만난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다.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던 장발장은 운명의 여인, 판틴으로부터 그녀의 딸 코제트를 부탁받는다. 그러나 코제트를 만나기도 전에 경감 자베르는 장발장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 제2남선교회 몽골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정재훈 안수집사
용인·화성교구
제2남선교회 회장

몽골로 떠나기 전, 우리는 60일간 릴레이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만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제2남선교회에서는 담당 박용준 목사를 포함한 27명이 10월 2일부터 7일까지 "몽골의 다음세대를 품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여정으로 울란바토르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몽골국제대학교(MIU) 부속 중학교 학생들, 쓰레기 처리장 인근 '천국의열쇠교회' 성도들, 한국 유학 시절 영락교회 몽골어예배에 출석하다 귀국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천국의열쇠교회
어린이 만남

몽골국제대학교 부속 중학교 학생들과







▲ 노방 학생 전도
▶ 천국의열쇠교회 풍선사역

다시 잡을 손을 기다리며

이 학교 학생들 중에는 지난해 1월 한국 수학여행 중 영락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과 내년 6월 방문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단원과 학생이 짝을 이루어 퀴즈로 양국의 문화를 알아가며 찬양하고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가까워졌고, 교제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내년 6월, 이들과 영락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몽골에서 시작된 만남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인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이웃

설립 13년째인 천국의열쇠교회는 평소 약 30명이 주일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려운 삶 속에도 천국을 향한 소망과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단원들은 마을의 쓰레기를 줍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10월 4일 주일에는 약 100명의 주민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작은 교회에 모인 이웃을 보며 감사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낯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 달라고 드린 기도를 의지하며 통역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신한 이도, 단원들을 집으로 초청한 이도 있었습니다. 잔치에 왔던 학생을 길에서 다시 만나 그 학생과 친구 두 명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테를지 국립공원의 청년 마부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6일간 동행한 버스 기사도 천국의열쇠교회로 안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마다 함께 드린 기도를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결단이 현지 교회의 돌봄 속에서 삶에 뿌리내리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던 마음에 주신 응답

10월 5일 오후 4시, 몽골제일교회에서 영락교회 몽골인 성도들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유학생들이 어느덧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 그리



몽골제일교회 영락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인연 확인



천국의열쇠교회 성도 가정 방문

고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딸, 손자가 자리했고, 뒤이어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0분을 더 기다려도 네 명뿐이어서 경건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몽골어예배 팀장으로 섬겨 온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귀국 후 신앙생활이 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빈자리를 마주하니 안타까움과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 예상했던 20여 명을 넘어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프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근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성도들은 잊지 않고 찾아온 방문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귀국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소중함을 새기며, 멀리 있어도 이어지는 믿음의 인연을 기도와 사랑으로 붙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 씨앗을 심습니다

마지막 날, 테를지 공원 산속 천국의열쇠교회 수련원에서 모닥불을 둘러싸고 1분 나눔을 했습니다. 고백마다 6일간 만난 사람들과 은혜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몽골 해외선교 가정방문사역을 마치고

이민하 장로 _ 강북·도봉교구

선교 둘째 날, 천국의열쇠교회 성도 다섯 가정을 방문해 삶의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세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 게르에 월세로 살며 보금자리를 소망하는 젊은 부부, 네 아들을 키우며 선천적 질병을 가진 막내의 돌봄과 생계를 감당하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맞으려 직장에서 잠시 나왔다가 심방 후 황급히 일터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더 깊이 마음을 울린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맞아 주는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가 섬김을 배웠습니다. 쌀과 선물을 전하고 풍선 아트로 함께 웃었습니다. 복음 팔찌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접 기도를 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복음이 사랑과 삶으로 전해짐을 느꼈습니다.

선교는 한 영혼의 삶에 다가가 그의 아픔을 품어주고, 소망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걷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작은 사랑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을 배워 돌아왔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작은 섬김을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닮아 가는 인터넷해외선교봉사



김병우 집사
강동·송파교구
제3남선교회 회장





MK팀 성경학교사역 – 선교사 자녀, 단원 자녀

선교사 가족과 일주일을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여기 무려 50여 명의 선교사 가족과 일주일을 함께하는 선교 행사가 있습니다. 1999년에 시작해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인터넷해외선교봉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행사는 제3남선교회 주관으로 선교사와 성도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서 진행됩니다.

인터넷해외선교봉사(이하, '인해선')란?

'인해선'은 해외 선교사의 거점 지역(국가)을 중심으로 두고, 그 근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초교파적으로 초청하여 인터넷 활용부터 문서, 사진, 영상 제작까지 시대적 흐름에 맞춘 IT 교육과 관련 기자재를 지원하는 선교봉사사역입니다.

아울러 MK(선교사 자녀) 사역과 의료 봉사 등을 병행하며, 쉼 없이 달려온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회복,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사역에 필요한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단원들의 격려와 기도

제27차 인해선은?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열왕기상 19:7~8)라는 주제 말씀으로 9월 21일(월)부터 9월 26일(토)까지 베트남 나트랑에서 선교사 가정 47명과 단원 및 선교부 가정 55명, 총 10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올해 인해선의 특징은 첫째, 본 교회 파송·협동·교구 배정 선교사 열여덟 분과 그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둘째, IT 교육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AI와 디지털 기술을 사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주제 말씀의 배경인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선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진행 및 팀별 활동은?

IT팀은 약 2개월 동안 스터디와 교육을 준비했고, 찬양팀·MK팀·의료팀·영상팀·본부팀은 약 6주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각 선교사 가정에서 성인 33명과 MK 14명이 함께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들은 길게는 이틀에 걸쳐 이동하여 베트남 나트랑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오신 네 가정은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의 사역과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팀은 교역자 세 명과 찬양팀 5명을 중심으로 예배와 경건회를 준비했습니다. 총 다섯 차례의 집회를 통해 선교사와 단원들이 함께 말씀과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집회에서는 선교사와 단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인해선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IT팀 교육은 총 1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주 강사인 지상우 팀장을 비롯한 12명의 팀원이 강의와 1:1 맞춤 교육을 진행했고, 선교사들의 AI 활용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MK팀 발표회

MK 성경학교, 선교사와 단원 자녀들을 위한 성경학교도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인 전도사와 박찬일 팀장을 비롯한 6명의 교사가 MK 14명과 단원 자녀 8명을 대상으로 만들기와 그리기, 게임, 찬양,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승훈 팀장(의사)을 포함한 3명의 의료팀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발열이나 복통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진료하며 건강을 살폈습니다.

영상·미디어팀 5명은 행사 기간 중에 사진과 영상 기록물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선교사 가족의 사진을 액자로 제작하여 선물했습니다. 또한 액션캠 활용 특강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인해선의 진정한 의미는?

인해선 일정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 가듯, 단원들이 선교사들을 닮아 가는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사들과 함께 지낸 시간의 가치는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선교사들의 믿음과 사랑, 헌신을 조금씩 닮아 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IT팀 교육

첫째,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닮아 가다

오늘도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나 열악한 환경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인해선을 위해 MK팀은 큰 캐리어 2개에 가득 싣고 온 물품으로 십자가 패널 그리기, 만들기, 각종 게임, 찬양 율동 등을 쉴 틈 없이 준비했습니다. 단원들은 팀별로 준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까지 뒷정리를 했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점차 선교사들의 그 큰 사역에 한 걸음씩 따라가는 단원들이 되어 갔습니다.

둘째, 선교사들의 진실된 사랑을 닮아 가다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역을 해나가는 힘은 그 땅과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 큰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전해짐을 느꼈습니다.

인해선이 끝나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민이 형(MK) 보러 청도에 가자." 벌써 선교사 자녀와 친해진 걸 보니, '인해선을 정말 잘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를 닮아 가는 시간, 내년에도 영락의 성도들이 함께합시다. 만남


선교사 특송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르더크, 그곳에 의료선교로 뿌린 복음의 씨앗



약무팀 조제실의 모습



조하현 성도
인천교구
대학부



성형외과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



팝콘을 기다리는 몽골 어린이들



거르더크 믿음의궁전교회 앞 의료선교팀 단체사진

치앙마이 산골까지 흘러간 **복음**, 자녀의 가슴에 불꽃으로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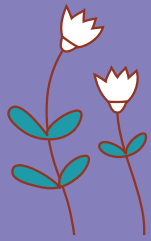




싸이탄행치윗교회



남푸행치윗교회





이민규 집사
인천교구



라후세레족 가정 축호전도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



홍준표 목사
사랑부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의 길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등학교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예배와 기도 모임, 그리고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첫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임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조금 특별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역은 교회에서 가장 연륜이 있으신 60~80세 권사님들로 구성된 목장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대선배이자 산전수전을 겪으신 권사님들과 새내기 전도사의 만남은 어색하면서도 신선했지만, 겸손하고 따뜻하신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장의 권사님들은 말씀 나눔 시간마다 과거에 겪으셨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살아오신 시대는 꽤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잃는 슬픔도 있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며 많은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추운 겨울에 거리로 쫓겨나 온갖 수치를 당했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고,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하는 권사님들을 보며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감사하다고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들께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은 항상 그 찬송가를 부르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라는 고백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감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고난과 아픔의 시대를 살아왔음에도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를 걸을 때나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사가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오



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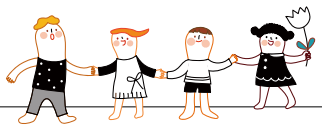
내 삶에도 이어진 감사의 고백

저에게도 감사의 고백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상처와 고통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권사님들의 감사 고백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기뻤던 순간뿐 아니라 눈물 나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오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만남

언어는 달라도 **찬양**은 **하나**

(Many Tongues, One Praise)





최민혁 기자
홍보출판부

천국에서는 어느 나라 말로 찬양할까요? 요한이 본 천국에는 나라도 민족도 언어도 다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었고, 언어는 달라도 그들의 찬양은 하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9). 하나님은 그 찬양을 주일마다 영락교회 안에서 미리 듣게 하십니다.



국제예배



미얀마어예배

하나님이 보내 주신 이웃

영락교회는 고향을 두고 떠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세운 교회이기에, 낯선 땅에서 예배할 곳을 찾던 그 간절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우리 곁의 스무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외국인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내 주셨으니, 이는 크신 은혜이자 감사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영락의 주일에는 영어(국제예배)와 여섯 나라 말(외국어예배), 그리고 통역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영어로 드리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국제예배)

1998년에 시작된 국제예배(IWE)는 예배부에 속한 영어예배 공동체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준희 목사(Rev. Joe Chung)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교제를 함께 이루어 가는 이곳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주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30분에 선교관에서 국제예배가 진행되고, 어린이예배(ZERA Kids)는 오전 10시 봉사관 504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듣는 복음(외국어예배)

선교부 외국어예배는 네팔,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몽골, 중국 등 나라별 외국인들이 모여서 고국의 언어로 예배와 친교를 나누며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동일 언어, 동일 문화권을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낯선 땅에서 모국어로 듣는 말씀과 찬양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예배는 주일마다 봉사관에서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네팔어 오전 9:30 (501호)
- 러시아어 오전 11:00 (501호)
- 미얀마어 오후 1:00 (304호)
- 베트남어 오후 1:30
  (아바하우스, 보아스빌딩 3층)
- 몽골어 오후 3:00 (501호)
- 중국어 오후 3:00 (304호)

외국어예배

또한 한글문화교육팀이 여는 '영락 한글문화교실'은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대상 한글교사 양성과정', '영락 한글자랑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역으로 함께하는 본당 예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영락 예배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안내팀은 주일 2부 예배(오전 9:30)와 3부 예배(오전 11:30)에 〈본당 남문〉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송수신기가 세팅된 자리로 안내해 영어와 일본어로 동시통역 예배를 드리도록 돕습니다.

예약 시 독일어와 중국어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영어·일본어·중국어 주보도 매주 준비됩니다. 스무 명 넘는 팀원이 이 일을 맡고 있으며 교회의 국제 행사도 돕습니다. 교회 내 국제 행사나 네팔어·러시아어·중국어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선교사가 방문객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때에도, 선교사가 제공하는 통역을 송수신기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이들이 저마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랐듯이(사도행전 2:11), 통역으로 드리는 예배는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귀중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국제예배와 외국어예배, 통역으로 드리는 예배는 언어와 모습은 달라도 모두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 뒤에서 통역하고 가르치고 안내하며 묵묵히 섬기는 여러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차례이니, 곁에 외국인 동료와 유학생, 한국어가 낯선 이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당신의 언어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라고 전해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고 그가 돌아갈 한 나라를 만나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안남

성경 속 한자이야기

11월 말씀 속 한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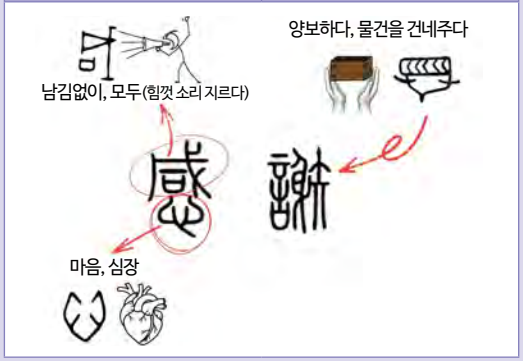


김현중 성도 _ 서대문·은평교구, 홍보출판부

한자 돋보기

感謝

感	謝
느낄 감	사례할 사



성경에서 만나는 ‘감사(感謝)’는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닌,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시선입니다.

느낄 감(感)의 옛 글자는 ‘남김없이, 모든’이라는 뜻의 함(咸)과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또한 사례할 사(謝)는 말씀 언(言)과 쏠 사(射)가 합쳐져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입 밖의 말로 전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갑골문에서는 ‘양손에 물건을 잡고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한자 속 감사(感謝)는 ‘어느 하나 빠짐없이 오감과 온 마음으로 느끼고, 그 고마움을 담아 건네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기쁠 때나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범한 일상에서도 모든 순간을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결실의 계절 11월, 삶 속에 녹아 있던 작은 은혜들을 찾아 지나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쳐버리기 쉬운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낸 ‘작지만 선명한 감사’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 입술로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전해 보세요.

01





전교인 만남주일

전교인 만남주일이 9월 20일(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베다니 광장과 봉사관 앞 교구별 만남의 장소에서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만남주일부터는 온라인 교적용 '영락교회 신앙 포털' 앱을 설치하여 출석 체크 및 구역장을 통해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성도들은 자신과 가족, 수험생,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명절을 앞두고 떡과 간식을 나누는 가운데 교제하며 교구목사와 전도사의 기도를 받으며, 간증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을 나누었다.

취재 **이지민** 기자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 아동부 연합찬양제 '리틀스타'

02



지난 10월 18일(주일) 오후 5시, 베다니홀에서 아동부 연합찬양제인 '리틀스타'가 열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리틀스타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찬양대와 앙상블이 연합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자리였다.

첫 순서로 오른 유년부찬양대는 '돈으로도 못 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등의 찬양을 율동과 함께 부르며 기쁨을 선사했다. 이어 초등부찬양대는 '광야의 길', '십자가'처럼 한층 성숙한 찬양으로 청중의 마음을 울렸고, 소년부찬양대는 앙상블과 함께 '나의 가는 길' 등의 찬양을 올려 큰 감동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아동부찬양대 전원이 무대에 올라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선창했고, 찬양제에 참석한 모든 이도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한목소리로 함께 찬양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한마음으로 바라는 가운데, 찬양제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취재 **정진이** 기자

2026 소그룹의 날



03

소그룹전담부(부장 강상진 장로)는 10월 25일(주일) '2026 소그룹의 날'을 열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소그룹의 날'에는 소그룹 활동과 비전을 나누는데, 1~5부 주일예배에서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찬양예배는 부장 강상진 장로가 인도하고 차장 조현수 안수집사가 기도했으며, 김연순 권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김여호수아 목사는 '힘없는 자들의 승리'(에스더 4장 14~17절)라는 말씀을 전했다. 5교구 선순하 집사의 간증과 '주가 일하시네'·'은혜' 특송도 있었다.

새가족 정착 사역 '이음' 수료자는 80명을 넘었다. 매월 첫째 토요일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후 열리는 '토요말씀 소그룹'에는 40명, '주일 말씀 소그룹'에는 100명 넘게 참여한다. 주일 모임은 마가복음·룻기에 이어 에스더를 읽으며 '소그룹 리더십 훈련'으로 리더를 양성하는데, 더 많은 성도가 소그룹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길 기대한다.

은퇴장로회, 백수·구순·팔순 감사예배 드려

은퇴장로회(회장 김충손 장로)는 10월 8일(목) 제2식당에서 은퇴장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수·구순·팔순 감사예식을 가졌다.

1부 감사예배는 최재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우리가 지지 않는 이유'(시편 129:1~2)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들이 되기를 권면했다.



04

2부 축하연은 조영리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백수 김용수 장로, 구순 김주선·박민성·안봉순 장로, 팔순 이영선·오선화·정승봉·전성희 장로를 모시고 축하 노래와 케이크 커팅, 김충손 장로의 축하 인사, 베다니회 선물 증정이 이어졌다.

답례 인사를 한 김용수 장로는 16세에 신의주에서 월남한 뒤 삶을 돌아보며, 영락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자 은혜였다며 감사를 전하고 모두 교회를 사랑하자고 당부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서울노회 제211회 정기노회, 우리 교회 전도사 8명 목사 임직

05





지난 10월 22일(목) 새문안교회에서 제211회 서울노회가 열렸다. 주요 회무 처리와 함께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직전 목사 부노회장인 최영걸 목사(홍익교회)가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했으며, 목사 부노회장에 우태욱 목사(고읍교회), 장로 부노회장에 서상현 장로(영락교회)가 선출되었다.

이날 오후 5시에 거행된 목사 안수식은 노회장 최영걸 목사 집례로 임직자 소개에 이어 서약, 안수 기도, 선포 후, 안수증과 임직패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교회 목사 임직자(8명)

이태규 양동욱 안재명 김민혁
김 휘 김승겸 이예찬 김철환



06

영락교회 후원, '제1회 한경직 강연' 개최

영락교회가 후원하는 제1회 한경직 강연이 지난 10월 19일(월)과 20일(화), 22일(목)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한경직 목사의 신앙 유산을 되새기고, 현 신학교육을 성찰하며 미래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강연 첫째 날인 19일에는 김운성 목사의 격려사와 박홍준 장로의 기도가 있었으며, 많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신대 박경수 총장의 사회로 임성빈·박상진 명예교수가 '신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성찰, 진단,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둘째 날(20일)과 셋째 날(22일)에는 각각 두 개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신학교육의 삼중적 위기'와 '신학교육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셋째 날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교육의 변혁적 과제'와 '소망의 이유를 형성하는 신학교'가 주제로 다루어졌다.

박지운 목사 사임



강서·구로·양천교구와 홍보출판부를 맡아 사역해 오던 박지운 목사가 10월 4일 주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강남동산교회(강남구 개포동 소재)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8년 2월 부목사로 부임하여 서대문·은평교구, 전도부, 제2남선교회, 제2여전도회, 시온찬양대, 예배위원회(헵시바) 사역을 시작으로 고양·파주교구, 호산나찬양대, 중구·용산교구, 목양부, 권사회를 맡아 사역해 왔다. 이임 설교는 10월 4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드려졌다. 박 목사는 '자격 없는 자, 인정받은 자'(디모데후서 2:14~15)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나온 9년은 제 인생 가장 큰 축복이자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영락의 뜰에서 배운 목자의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지에서 예수 잘 믿는 목사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한윤 목사 사임



동대문·중랑교구와 경조부를 맡아 사역해 오던 최한윤 목사가 10월 11일 주일로 사임하고 동숭교회(종로구 동숭동 소재)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8년 2월 부목사로 부임한 최 목사는 관악·동작·금천교구와 북한선교부, 임마누엘찬양대, 강서·구로·양천교구, 예배위원회, 음악부, 안수집사회, 마포·영등포교구, 교회음악아카데미, 경조부, 동대문·중랑교구, 베들레헴찬양대를 맡아 사역해왔다. 학원선교대회 행사로, 미리 9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최 목사는 "영락교회에서 8년 8개월의 시간이 목회자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가득 안고 새로운 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직원 영성 수련 및 창립 기념 감사예배



영락사회복지재단은 2026년 10월 2일(금) 영락경로원에서 사회복지사업 87주년, 재단 창립 69주년을 맞아 직원 영성 수련을 진행하고 창립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직원 영성 수련에서는 이지철 목사를 초청해 '감정의 발견과 감정 다루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며, 일상과 업무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창립 기념 감사예배에서는 김운성 담임목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재단이 걸어온 지난 69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오랜 시간 재단과 함께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애독자 참여코너

11월호 『만남』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만남』 제작을 위해 성도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래 내용을 적어 제출(QR코드 또는 이메일 youngnak-hb@daum.net) 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다음 호에 당첨자 발표 예정 / 당첨 응모나 기사 추천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소속(교구/봉사부서/교육부/기타): _____

1. 이번 달 『만남』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기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이유나 소감도 간단히 적어 주세요.

_____

2. 주변에서 『만남』 기사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교우들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채택 시 추후 취재를 통해 기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_____

지난 호 당첨을 축하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김은영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이은규 성도
(노원교구, 청년회)



봉사관 503호
홍보출판부로 오셔서
선물을 수령해가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Noli me tangere,
touch me not
1656

로랑 드 라 이르
Laurent de la Hyre
1606~1656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프랑스 고전주의 화가 로랑 드 라 이르(Laurent de la Hyre)가 1656년에 그린 마지막 유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을 절제된 감정과 섬세한 색채로 차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11~18절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울던 마리아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을 알아보고 반가움과 놀라움에 손을 뻗어 만지려 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의 긴장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며 "나를 붙들지 말라(noli me tangere)."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마리아의 사랑을 거절하시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신을 붙드는 데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후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며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과연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잘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자문하게 됩니다.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6년 11월호 통권 630호

발행 2026. 11.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남정열 / **편집인** 김주헌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이신일 김정훈 김기선 박선이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최윤미 / 김천경 승윤영 유승아 이나영 이지민 정진이 최민혁 최한나
사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표지 설명



11월, 저무는 햇살을 품은 억새가 고개를 숙입니다. 한 해의 기쁨과 눈물 속에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손길을 돌아봅니다. 감사는 풍성한 열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날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수확입니다.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9월

※ 교회 홈페이지 게재 기준











새아기

1 박서린(박정근, 정에스더 가정)
2 최시아(최중혁, 전유나 가정)
3 김단우(김평강, 김지형 가정)
4 김하준(김영주, 서지영 가정)
5 배하윤(배현우, 이세진 가정)
6 최하은(최정진, 신별이 가정)
7 국희찬(국두현, 임수현 가정)
8 마승후(마성훈, 서아연 가정)
9 심온유(심창근, 김소정 가정)









▶ 새아기, 새가정, 군 입대로 주일 4부예배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성도께서는 각 교구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Noli me tangere, touch me not

로랑 드 라 이르 (Laurent de la Hyre)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요한복음 20:11)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 20:17)